

# 세계 앞세운 미국패권 전략

## ◇ 학술특집 — UN의 어제와 오늘

### I. 들어가며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전후의 국제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47년간을 존속해 온 국제연합(UN)은 그동안 국제질서상의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을 달리해 왔으며, 최근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소위 탈냉전과 신세계질서로 불리는 변화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UN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물론 냉전시대를 탈피하면서 UN이 가지게 된 기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변화과정이 나타내는 성격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서 UN의 존재 위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II. 과거의 국제질서와 UN

탈냉전 이전까지 전후 국제질서에서의 UN의 위상은 20세기 후반의 냉전구도에 의하여 한정되었던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즉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연합세력은 종전 후 미 소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로 귀결되었고, 20세기 후반의 국제질서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냉전구도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 주도체제의 특징을 가진 UN은 국제평화와 안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양극대결이 완화되는 데방트 시기에는 UN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기본적인 냉전구도 속에서의 UN의 위상과 역할은 196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마비되어 왔

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UN의 한계가 극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UN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녔던 국제질서의 '냉전구조' 변화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9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의 신사고(New Thinking)의 고조,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개혁 개방으로의 변화는 차츰 탈냉전의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었으며, '결프전과 구소련연방체' 등 획기적인 국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에서 UN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도 UN의 기능은 차츰 강화되어 가고 있었다.

### III. 결프전과 UN

특히 결프전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탈냉전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UN으로 하여금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고 고유의 기능을 회복토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UN의 위상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켜 주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UN의 반응은 즉각적인 것이었고, UN의 제재조치들은 종래와는 아주 상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어느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한국전 참전결의안을 제외하고는 미국, 소련,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집단안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아주 중요한 변화였다.

둘째, 10개국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국들도 아주 높은 단합을 보여 주었다. 예멘과 쿠바만이 반대와 기권을 보였을 뿐 여타 비상임이사국들은 모든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셋째, 종래와 달리 UN의 대이라크 경제제재가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UN회원국들이

안보리결의안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엔가능 강화의 한 단면을 표시시켜 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연맹이 제재에 있어서

그중 세계평화의 유지와 평화조성 특히 동서진영간의 대립이 해소된 대신 분쟁가능성이 높아진 개별국가간 분쟁에 대한 예방의무를 UN이 수행한다는 내용이 주목을 끌고있는 바 실제로도 UN의



◇ 결프전 후 UN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냉전구도 속 위상 상실한 채 양극대결장에 그쳐 탈이데올로기시대 맞아 남북문제 쟁점되기도

무려사용금지라고 하는 가장 큰 취약점을 가졌던 반면, 유엔헌장 제7조로 이를 명문화한 유엔이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평화유지와 집단안보의 명분 아래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유엔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아주 의미있는 현상이었다.

특히 올해 1월31일 열린 유엔 안보리 정상회담은 구소련 해체와 냉전이후 형성되는 신세계질서에서 UN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행사였다.

평화유지활동은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 보인다.

### IV. 새로운 세계질서와 UN

그러한 이상과 같은 유엔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가능한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탈냉전이라는 변화 자체가 유엔이 과거 냉전시기에 역할하버를 경험했다는 것에 비추어 밝은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유엔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엄연한 국제질서의 현실과 변화가 유

엔의 존재 앞에 다시금 불확실성을 던져 주고 있으며, 유엔이 그에 대응하여 자신의 위상을 재조정하는 힘든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장래 유엔의 위상과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유엔과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관계이다. 현재와 같은 미국의 단일패권만이 존재하는 국제정치적 현실 속에서 유엔이 미국의 이상과 국가이익에 합의를 이루고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는 한 유엔중심의 신세계질서는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기대를 높였던 결프전이 밝혀준 또 하나의 사실은 냉전체제 하에 있는 상상치 못했던 미국의 군사적 패권, 혹은 'Pax Americana'의 질서를 재확인해 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엔 중심의 'Pax Universalis'는 조건부적이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Pax Americana'의 위상된 표출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유엔과의 관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려되는 것은 최근 중동지역 여러나라에 대한 유엔의 대응이 강대국 이기주의에 이끌리고 있다는 주장과 특히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주요한 책임을 맡아 회원국들을 대신한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을 대량으로 상임이사국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식의 시늬가 없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동아랍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빈번한 조치가 과연 국제평화를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지지하거나 제재에 참여해야 할 실질의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31일 유엔안보리사회가 채택한 결의 제748호에 따라 4월 15일 자정발효된 대리비아 제재조치가 채택된 중인데, 그에 대한 리비아의 강력한 반발과 주변 아랍권의 압력적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등 유엔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한편으로 또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유엔의 체제개편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특히 5개상임이사

국에 차별적인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리 체제를 개편하지는 않기로 결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논의이다. 즉 1945년에 결성된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 안보리 체제에 대해서는 그 '시대착오성'을 지적하며 개편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그간 심심찮게 있어 왔다. 결프전에서 유엔이 단지 미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의 연장선상에서 세계 각국의 전 현직 지도자 36명이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해 유엔의 근대화'라는 표현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재검토 등 유엔의 민주화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동서진영의 갈등해소로 냉전구도에 의한 유엔역할의 마비는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남북문제의 촉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또 다른 갈등의 잠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화방식의 체제개편의 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이들 국가와는 다른 맥락에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결의 제748호에 따라 4월 15일 자정발효된 대리비아 제재조치가 채택된 중인데, 그에 대한 리비아의 강력한 반발과 주변 아랍권의 압력적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등 유엔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한편으로 또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유엔의 체제개편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특히 5개상임이사

국에 차별적인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리 체제를 개편하지는 않기로 결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논의이다. 즉 1945년에 결성된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 안보리 체제에 대해서는 그 '시대착오성'을 지적하며 개편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그간 심심찮게 있어 왔다. 결프전에서 유엔이 단지 미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의 연장선상에서 세계 각국의 전 현직 지도자 36명이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해 유엔의 근대화'라는 표현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재검토 등 유엔의 민주화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동서진영의 갈등해소로 냉전구도에 의한 유엔역할의 마비는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남북문제의 촉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또 다른 갈등의 잠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화방식의 체제개편의 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이들 국가와는 다른 맥락에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결의 제748호에 따라 4월 15일 자정발효된 대리비아 제재조치가 채택된 중인데, 그에 대한 리비아의 강력한 반발과 주변 아랍권의 압력적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등 유엔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한편으로 또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유엔의 체제개편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특히 5개상임이사

국에 차별적인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리 체제를 개편하지는 않기로 결정하고 진행되고 있는 논의이다. 즉 1945년에 결성된 제2차세계대전 승전국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 안보리 체제에 대해서는 그 '시대착오성'을 지적하며 개편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그간 심심찮게 있어 왔다. 결프전에서 유엔이 단지 미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의 연장선상에서 세계 각국의 전 현직 지도자 36명이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해 유엔의 근대화'라는 표현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재검토 등 유엔의 민주화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동서진영의 갈등해소로 냉전구도에 의한 유엔역할의 마비는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남북문제의 촉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또 다른 갈등의 잠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화방식의 체제개편의 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이들 국가와는 다른 맥락에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결의 제748호에 따라 4월 15일 자정발효된 대리비아 제재조치가 채택된 중인데, 그에 대한 리비아의 강력한 반발과 주변 아랍권의 압력적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등 유엔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한편으로 또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러운

개최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는 그 시급성이 될 것이다.

### V.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 제3세계 대 선진발전국 사이의 대립으로 한계지워졌던 유엔의 기능과 역할은 탈냉전구도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엔은 앞서 언급한 여러 국제질서의 변화요인이 나타내는 것처럼 현재 진행중인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의 특징인 '과도기적 변화'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서 장래에 있어서의 유엔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정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엔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하며, 이는 현 국제질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최근의 캄보디아 유고의 평화유지활동,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과정, 그리고 오는 6월의 유엔환경개발회의 등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유엔의 위상변화와 관련하여 변화하여야 할 시점이 있다. 현 정부도 나름대로의 유엔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유엔의 위상은 과거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외교적 성과로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노력보다는 국내의 신적합 문제해결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석헌  
(연대 석사과정·정치학)

## 학술정보

### 제19기 한국사교실 안내

목요일, 역사문제연구소서 제19기 한국사교실안내가 역사문제연구소 주최로 오는 4월23일부터 6월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역사문제연구소 강연실에서 열린다.

‘친일파·민족반역자 열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실은 민족노 이완용·송병준을 위시한 친일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친일파를 다시 본다.
-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 역사적 평가(4월23일)

(서종석/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성균관대 교수)

- ▲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민족노의 오명
- 이완용·송병준(4월30일)(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 친일을 애국으로 착각한 지식인들
- 이광수, 최남선(5월7일)(임헌영/문화예술대학장)
- ▲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기업인들
- 박홍신·문명기(5월14일)(박현희/조선대 교수)

### ‘문예아카데미’ 개최

매주목, 민예총회관에서 지난 3월19일부터 시작된 민

### 예총 문예학교 ‘문예아카데미’가

오는 7월2일까지 열린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문예아카데미는 ‘한국역사교실’로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펴낸 ‘한국역사’의 필자들이 책 내용을 가지고 강의한다.

### 공추련, 배움마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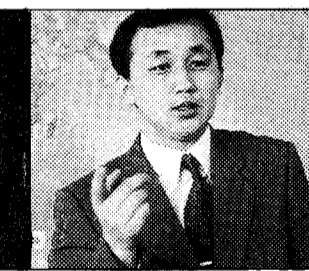
22일, 종로성당 강당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오는 22일(수요일)부터 5월22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오후 7시20분 제11기 생존과 평화를 위한 배움마당을 개최한다. 종로성당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배움마당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명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을 제시하여 환경에 대한 사고와 실천의지를 이

### 풀어 내는 장이다.

수요일 개강식에는 ‘삶의문화 죽음의 문화’라는 주제로 임진택(연출가)씨가 강의한다.

### 사민청, 정치학교개최

매주화·금요일 오후 7시30분 열린다. 사상적 혼란을 극복하고 과학적 사고의 틀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번 정치학교의 강사는 오세철(연세대교수·민중회의 준비위원장), 유호하(총련대 교수·정치학교교장), 최형복(민중회의 기관지 편집위원장) 등이다.



1989년 1월 입사 해외사업부 동유럽지역 담당 김철환

## 김철환氏의 “7시간 늦게 가는 시계”

인간·지구에 꿈·행복을... ①

### 헝가리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에서 -

헝가리 부다페스트공항. 곧 이륙할 09:00 발 프랑크푸르트행 여객기 내에서 지난 열흘간의 출장을 가만히 정리해봅니다. 다뉴브 강변을 몇번이나 지나치면서도 신선한 강바람 한번 맡겠 썩어보지 못할 만큼 비싸게 보낸 10일간의 헝가리 생활, 그리고 그 이전의 많은 나날들 -

### 처음 동유럽 수출팀에 배치받았을 때 -

1989년 1월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배치받은 '현대자동차 해외사업부 동유럽팀'. 당시엔 '아직 수교도 안된 공산권으로 과연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어떤지 마음 한구석이 짙었었죠.

### 마침내 소련으로 건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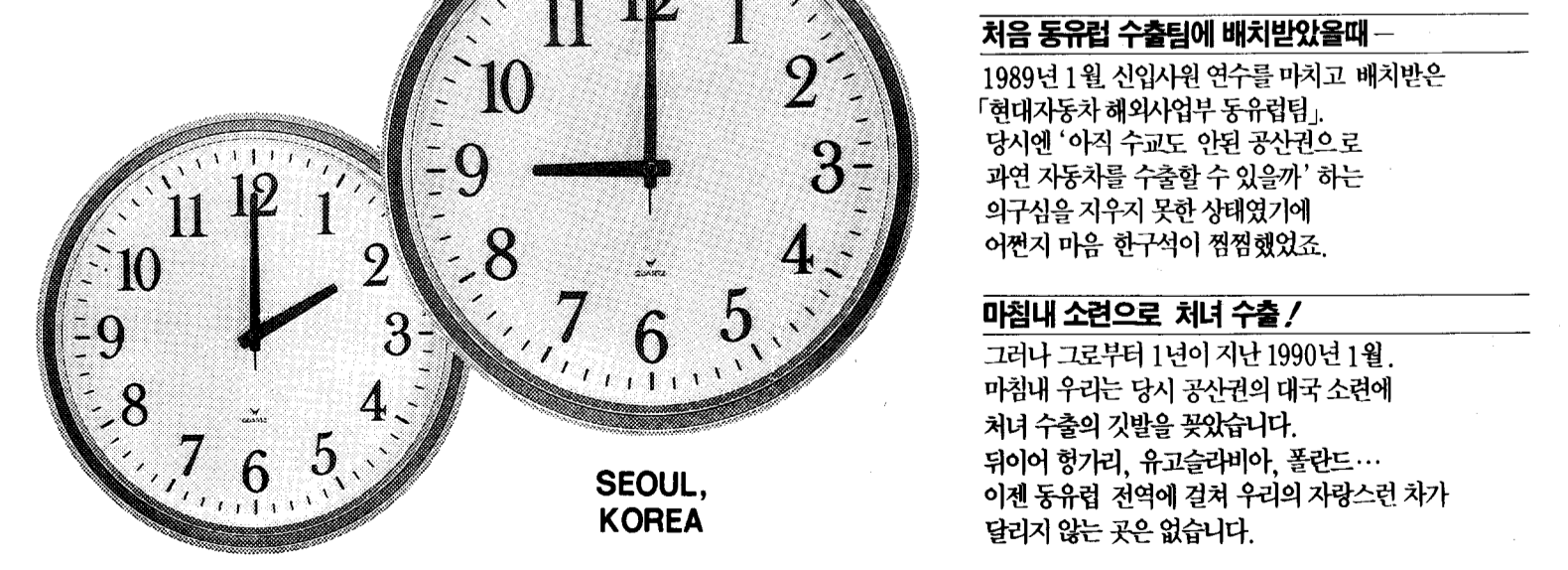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년 1월. 마침내 우리는 당시 공산권의 대국 소련에 건너 수출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뒤이어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이젠 동유럽 전역에 걸쳐 우리의 자랑스런 차가 달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 프랑크푸르트발 서울행 여객기에서 -

곧 김포공항에 착륙한다는 기대 방송.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환한 아침인데 손목시계는 새벽 2시가 조금 지나 있습니다. 아직 세 시까진 헝가리 시간이었군요. 시침을 다시 7시간 앞당겨 놓으며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차, 세계의 차

**HD 現代自動車**



SEOUL, KOREA  
BUDAPEST, HUNGARY